실패 기업인 8만명 빚 3.3조 정리… 재기 돕는다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캠코,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도와
12만건 기존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재창업자 5000명 육성·지원에 1조
'1+1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정부가 사업하다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8만여 명의 빚을 줄여주기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갖고 있는 12만 여 건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대보증으로 '주홍글씨'가 새겨진 개인 신용회복도 2021년까지 2만 명 가량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3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혁신 재창업도 돕는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신보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적극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캠코는 매입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줄여주게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정리대상 상각채권 규모만 기보의 경우 2조2887억원(채무자 7500여명), 지역신보는 8834억원(6만6500여명)에 달한다. 내년까지 9000억원 규모를 우선 정리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약 2조4000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약 12만건 정도인 기존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중기부 산하인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기존 연대보증이 대상이다.

다만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통과한 연대보증만 폐지 대상으로 심사에서 횡령, 사기 등이 드러나거나 성실경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실패기업인이 갚아야 할 세금 부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재기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간 징수·체납처분유예를 하고 있는데 올해말로 관련 혜택이 끝남에 따라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또 개인 파산시 압류에서 제외하는 재산 범위도 최저생계 등을 감안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기존의 900만원(6개월 생계비)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폐업 방법 등 사업정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실패 이후 폐업 신고, 자산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돕기로 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정리를 위한 상담건수만 2015년 1240건, 2016년 1896건, 2017년 2945건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패기업인의 기술기반형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조원 가량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00명의 재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7500명 가량의 신규 고용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중진공에만 290억원 배정된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규모'도 중진공 500억원, 기보 300억원, 소진공 100억원 등 총 900억원으로 늘려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정책자금을 받기 쉽지 않은 재도전 기업을 돕기로 했다"면서 "또 중기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업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같이 지원하는 '1+1 재도전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실패기업인에 2021년까지 1조 지원〉

- 기술 기반형 재창업자 5000명 육성
- 2021년까지 7,500여명(추정)의 신규 고용 추가 창출
-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성 갖춘 기술기반형(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 이전 재창업자 지원 대비 연 평균 4배 이상 지원

〈기술기반형 재창업자 지원규모 비교〉

구분	이전 (2010~2017년)		향후 (2018~2021)	
		연 평균		연 평균
지원규모	4,768	596	10,000	2,500
재창업자 육성	3,224	403	5,000	1,250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최고의 필터 담은 코웨이 '시루직수 정수기'

코웨이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코웨이의 물 전문성으로 탄생한 '시루직수 정수기'를 소개하고 있다. '시루직수 정수기'는 코웨이가 최상의 물 맛을 내기 위해 쉼 없이 연구한 결과물로 가장 우수한 정수기 필터로 평가 받는 RO 멤브레인 필터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수가 가능한 최초의 제품이다. /손진영 기자 son@

불로식당·향원미락 등 '백년가게' 14곳 추가 선정

중기부 14곳 추가돼 총 업체 30곳
위생·평판·행정처분 여부 등 평가

'직접 담근 장과 젓갈로 맛을 내며 해산물이 풍부한 마산의 장점을 반영한 한정식 메뉴가 특징인 52년 업력의 경남 창원 불로식당, 역시 올해로 52년째로 대를 이어 맛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의 복어전문점 향원미락, 할머니가 개업한 향미당 제과점을 이어받아 프랑스 밀가루와 유기농 호밀로 건강빵을 만들며 오랜 단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 사하구의 쉐라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들을 포함한 14곳을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과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여부, 평판도 등을 종합해 최종 14개 업체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선정된 업체는 음식업 9개와 도·소매업 5개 업체로 지역별로 서울 4개, 전북·대구·부산 2개, 경북·경남·전남·제주가 각 1개이다.

불로식당(경남 창원시), 향원미락(제주 서귀포시), 쉐라미(부산 사하구), 외바우(경북 경주시), 명동칼국수(서울 중구), 옥미아구찜(부산 수영구), 하나로회관(서울 종로구). 부산복집(서울 중구), 장군식당(서울 노원구), 청신한약방(대구 중구), 백초당한약방(대구 중구), 옥수굴비(전남 영광군), 혜화당한약방(전북 정읍시), 개미상회(전북 고창군) 등이다.

중기부는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성공모델을 발굴하고자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30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백년가게 확인서를 갖고 가까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100% 보증과 보증료율 고정 0.8%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대출 때 0.4%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셀트리온

"美 FDA서 '트룩시마' 승인 논의 중"

10월 10일 승인 위한 자문위 개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셀트리온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개발명 CT-P10·사진)'의 승인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을 연방 정부 공보 를 통해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FDA가 오는 10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FDA 화이트오크 캠퍼스에서 항암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트룩시마'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스 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맙테라/리툭산(성분명 리툭시맙)'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5월 FDA에 트룩시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재제출, 6월 FDA로부터 공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 과정을 거쳐왔다.

트룩시마의 허가 논의가 이루어질 자문위원회는 FDA의 독립된 자문기구로 FDA가 심사 중인 의약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제공한다. 해당 영역의 명망있는 의사·통계학자·병리학자·약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를 둘러싼 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FDA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FDA는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참고해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FD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 내 항암제 분야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빅파마인 테바(TEVA) 를 통해 미국 시장에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트룩시마는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 판매허가를 받아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미국에서도 많은 암환자들에게 합리적 비용의 치료 기회를 제공해 바이오시밀러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메디톡스

뇌성마비 환자 지원 앞장

뇌성마비복지회와 건강 증진 MOU

메디톡스가 전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국내 뇌성마비 환우 치료를 돕는 지원 활동에 참여한다.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국내 뇌성마비 환우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과 주희석 메디톡스 전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메디톡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여 있는 국내 뇌성마비 환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기부와 의료봉사 참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내에서는 메디톡스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를 바탕으로 뇌성마비 환우들의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박인웅 기자

지난 11일 진행된 GC녹십자엠에스 혈액투석액 플랜트 기공식에서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대표(오른쪽 일곱번째)와 이영찬 GC녹십자이엠 대표(오른쪽 여덟번째)가 임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C녹십자엠에스

국내 최대 '혈액투석액 플랜트' 첫 삽

GC녹십자엠에스

국내 최대규모의 혈액투석액 플랜트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GC녹십자엠에스는 충북 진천·음성 혁신단지에서 혈액투석액(Hemo Dialysis Solution) 플랜트의 기공식을 열고 착공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사장, 이영찬 GC녹십자이엠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플랜트는 약 2만2000㎡ 대지에 연간 410만개 혈액투석액 생산이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기존 GC녹십자엠에스 용인공장 생산규모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회사측은 제조 중심으로 전문화한 혈액투석액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GC녹십자엠에스는 설비설치와 검증, 시생산 등을 거쳐 오는 2020년에는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